



주간 파생시황

2026년 5월 4일~7일



▶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이번 주 시황 요약

이번 주 KOSPI200 선물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속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주 초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힘입어 지수는 1,100pt선을 상향 돌파하며 강세를 시현. 다만 목요일 들어 단기 고점 부담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최종적으로 최근월물 기준 전주 대비 160.20pt 급등한 1,158.70pt로 마감

수급 요약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가운데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 초반 6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목요일 하루 만에 5.9조 원의 기록적인 매물을 쏟아내며 하방 압력을 가중. 반면 개인은 목요일 5.3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물량을 소화. 이번 주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과 금융투자가 각각 2.8조 원, 1.0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양상

변동성 및 옵션 시장

지수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VKOSPI도 동반 상승하며 시장 내 경계 심리 확대되는 양상. 지난주 54.34pt로 마감했던 변동성지수는 주 후반 61.05pt까지 치솟으며 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 옵션시장에서는 지수 상단 돌파에 대한 부담 속에 프리미엄이 확대됐으며, 외국인의 대규모 현물 매도세와 맞물려 하방 리스크 우려로 풋옵션 헤지 수요가 부각.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 속에서도 변동성 관리가 최우선인 장세임을 나타내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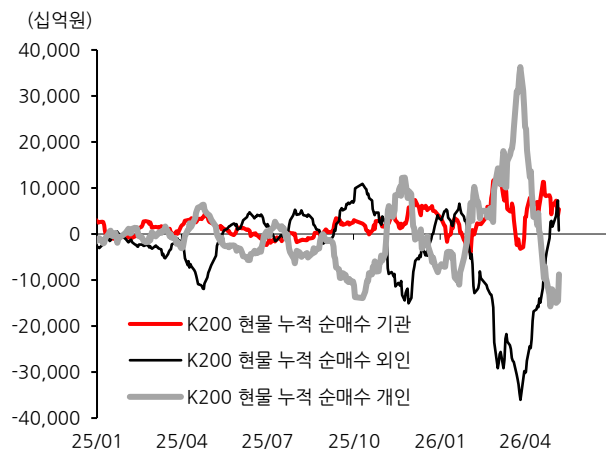
현·선물 베이스와 차익거래 동향

현·선물 베이스는 선물 저평가가 심화되며 백워테이션 기조가 뚜렷하게 지속. 주중 시장 베이스가 -79.1pt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론 베이스를 하회하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시화. 목요일 기준 시장 베이스는 -18.2pt, 이론 베이스는 -17.7pt를 기록하며 괴리율이 소폭 축소됐으나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났고, 이러한 베이스 약세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 매물 출회를 자극하며 지수의 변동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다음 주 전망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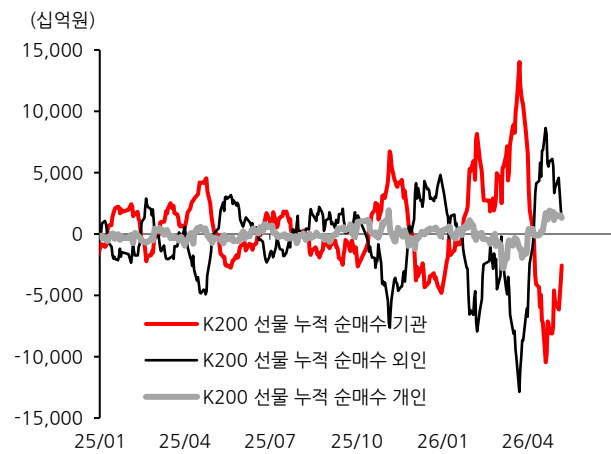
다음 주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 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복귀 여부에 주목할 필요. 중동 리스크의 실질적 해소 가능성과 미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가 부각되며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1,150pt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특히 기록적인 수준의 변동성 지수를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업종별 차별화 장세에 대비할 것을 권고

[그림1] KOSPI200 현물 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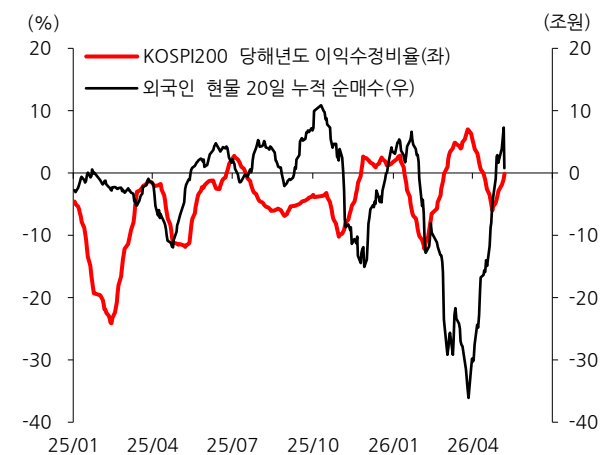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KOSPI200 선물 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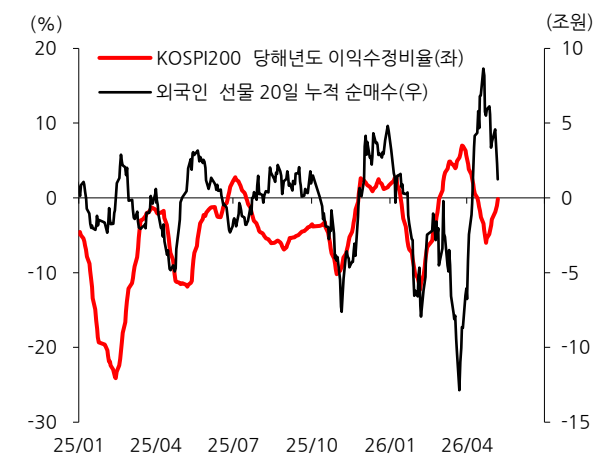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KOSPI200 이익 모멘텀과 외인 현물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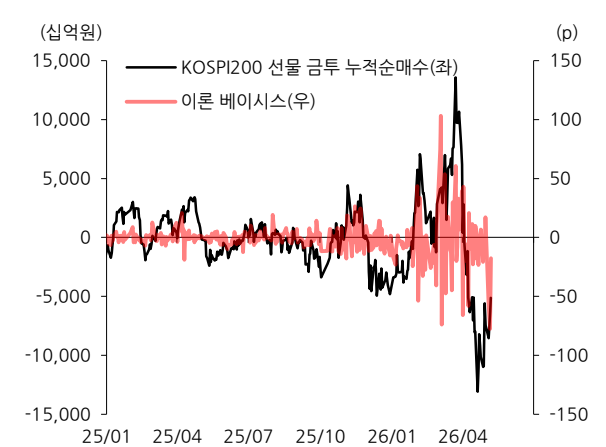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KOSPI200 이익 모멘텀과 외인 선물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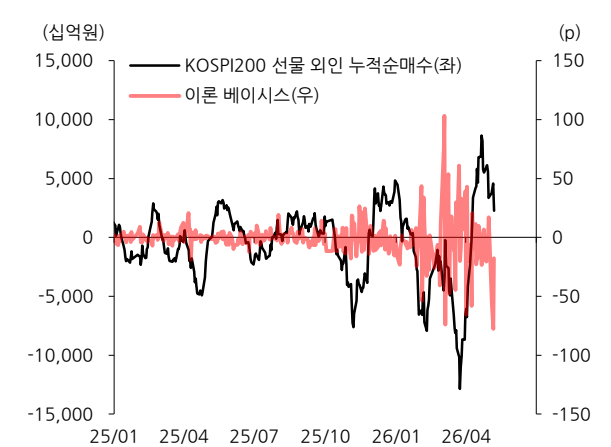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이론 베이스와 금투 누적 순매수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이론 베이스와 외인 누적 순매수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5월 8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투자전략팀)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re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